

“지난해 11만여건 검사...신속·정확한 결과에 최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현장을 가다

(4)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24시간 비상 근무체제...하루 최대 320여명 검체 검사 이뤄져 전국 최초 원인바이러스 분리 '성과'...시민 건강보호 사명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들이 검체 검사를 마치고 나면, 손잡아 기다리는 순간이 온다. 바로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때다. 검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자택 등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된 채 지내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발열 등 동등 구를 때 신속한 결과 통보는 한 가정과 직장 등에 안도감과 경각심을 주게 된다.

이처럼 검체 바이러스를 분석해 검사자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연구 등에 힘을 쏟는 기관이 있다. 바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오늘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의심자로부터 채취된 검사 대상을 신속히 검사하고 분석하는 일로 연일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크게 감염병과 위해식품, 환경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과 양육능가 지도를 위

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조속한 검체 검사와 결과 분석이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떠올랐다.

연구원은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확인검사를 하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10만9천여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앞서 종교단체나 서울 이태원발 감염 등 집단감염이 이뤄진 경우에는 많게는 하루 최대 320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광주지역 확진자의 70%가 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지난 2차 대유행 예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체계를 재정립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8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가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검체의 바이러스 전염력을 없애는 불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나 N95 마스크, 방호복 등에 대해 충분한 수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12명 3인 1조 체제에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감염병 및 식중독 대응으로 지원된 직원이 합류하면서 현재는 5명 1개 조로 5교대 근무 중이다.

검사 의뢰 건수가 많을 때는 모든 직원이 투입돼 코로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확진자 호흡기 검체로부터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확진자 28명의 검체로부터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한 것. 이 가운데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법으로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가 유일했으며 질병관리청,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면 흔치 않은 사례로 꼽혀 고무적이다.

이렇게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로 분석하고 질병관리청 등과 공유해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감염병의 진단·치료,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환자 특성 비교 분석, 백신 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원은 검사 업무 이외에도 정부의 시책과 관련된 조사와 검진, 연구사업 및 전문 분야 검사요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교육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외에도 에이즈, 식중독, SFP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법정 감염병 검사 업무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한때 검사량 폭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질병 검사 전문기관인 씨젠 의료재단이 구축되면서 하루 1만건 이상 검체 검사가 가능해지고, 그간의 학습과 연구로 지역 감염병 조기 발견과 대응이 더욱 수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감염 우려가 큰 학교와 같은 집단과 고위험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 등의 경우 연구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다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재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 직원이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광주 경찰 간부가 한밤중 금은방 털어 '충격'

CCTV 업무도 맡아 치밀한 수법...20일 만에 검거 역대 채무로 범행...광주경찰 잇단 비위·잡음 비난

광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심야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폐쇄회로(CC)TV 관련 업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경위는 범행을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잡혀있던 금은방 문을 부수고 매장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치밀한 범행이 가능했던 데는 임 경위가 현 지구대 근무 전 CCTV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경찰에 붙잡힌 임 경위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훔친 귀금속은 장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임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사팀이 회수했다.

임 경위는 수억원의 채무 문제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 경위가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 20일만인

전날 밤 붙잡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임 경위가 퇴원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 간부의 강력범죄로 인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의미 깊은 새해를 맞은 경찰은 연초부터 슬럼프에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경찰에 대해 국민 기대가 커지고 경찰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는 상황에서 작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최근 청연메디컬그룹에 고위급 경찰 다수가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직원 비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강력범죄까지 발생하자 광주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청연메디컬그룹 경찰 직원 비위의



범행당시 모습에 촬영된 금은방 CCTV 영상.

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급 직원에 대한 수사도 광산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형사와 재직 당시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위급 직원은 지난달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인 파면에 처했다.

광산경찰서장이었던 한 경무관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기자

해외 입국 뒤 자가격리 장소 이탈 60대 적발

해외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할 에도 주거지를 벗어난 60대가 적발됐다. /김동수기자

7일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3분께 광주 북구 60대 주민 A씨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기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오는 15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징역형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대신 받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연남뉴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한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 /연남뉴스

급매 전문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및임야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